

Elinor Ostrom

오스트롬 교수는 올리버 윌리엄슨 (Oliver Williamson) 교수와 함께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하여 여성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1990년 출판된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한글판: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 안도경 공역, 랜덤하우스코리아) 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오스트롬 교수는 193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UCLA 정치학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인디애나대 정치학과 아서 벤틀리 석좌교수(Arthur F. Bentley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이며, 연구센터의 성격의 「정치이론 및 정책분석 워크숍」을 남편이자 저명한 정치철학자인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 교수와 함께 만들고 오랫동안 공동 소장을 맡아 오고 있다. 오스트롬 교수는 또한 1997년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회장 재임 당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오스트롬 교수는 노벨상 수상 이전에도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프랑크 사이드만 상’(The Frank E. Seidman Distinguished Award in Political Economy - 이 상의 역대 수상자 가운데 5명이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스웨덴 옉살라(Uppsala) 대학의 요한 스카이트 상 (Johan Skytte Prize in Political Science, 1999), 미국 로체스터대 ‘윌리엄 라이커 상’(William H. Riker Prize in Political Science, 2008) 등 정치학, 경제학 분야 저명한 상을 다수 수상하였다. 또한 유리히대(1999), 스웨덴 루엘라대(2005), 스웨덴 옉살라대(2007), 독일 훔볼트대 (2007), 캐나다 맥길대(2008), 노르웨이 공과대학 (2008) 등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 받기도 하였다.

연구업적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1973년 처음 문을 연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이하 워크숍) 라는 이름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37년 동안 게임이론과 제도분석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조직과 정책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는 학문활동을 조직화해 오고 있다. 오스트롬이 이끄는 「워크숍」의 초기 연구 활동은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 - 수자원 개발공급이나 경찰서비스 등 -의 효율적인 제공방안을 모색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서로 다른 조직유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오스트롬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공공관리들 뿐 아니라 그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이 핵심적인 공동생산자(coproducer)임을 역설하고 있다.

오스트롬은 공공서비스의 조달이 반드시 정부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조직이나 시장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방식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오스트롬이 생각하고 있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그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 조직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오스트롬 교수의 연구 활동은 산림자원이나 관개체계 등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 문제를 주된 대상으로 공유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오고 있다. 공유자원관리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롬은 국가나 시장이 아닌, 제3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스트롬이 이끄는 워크숍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연구 활동은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직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한 목적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을 때,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으며, 또 그 제도적 장치의 고안원리는 무엇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에 관한 오스트롬의 기본 관점은 제도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생성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제도는 이의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의 인센티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거꾸로 구성원들의 집합적 선택에 의해 수정 변모되기도 한다.

특히 제도는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집합적 선택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을 때 내구성과 견고성을 갖는다는 것이 오스트롬의 기본 철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자발적으로 조직화되고, 자치규율이 이루어지는’ 공유 자원제도를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계 각 지역의 공유자원 체계를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경험적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롬 교수의 가장 큰 학문적 정향상의 특징은 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실천적 문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오스트롬은 게임이론 그 자체의 정교한 형식이론의 개발에 몰두하기 보다는 기존 이론이나 모델을 경험적 자료 속에서 검증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적 전망을 제시하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오스트롬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교한 예측을 도출해 낼 수도 있는 엄밀한 형식이론 보다는 경험적 현실에 대하여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을 추구한다. 오스트롬은 이론적 엄밀성을 위해 많은 변수를 전제로 처리하거나 상수화 하는 전통적인 접근법 대신 관련된 많은 상황변수를 분석틀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오스트롬과 워크숍의 가장 큰 학문적 공헌은 게임이론 및 집합행동이론의 엄밀한 형식논리와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대표저작인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는 저자의 이러한 학문적 정향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